

# 영암서 국내 최초 '한옥문화 비엔날레'

### 다음달 8~10일 사흘간 전시·공연·심포지엄 등 다양한 프로그램 한옥의 건축 조명, 새로운 문화·예술 가치 만들고 체험 기회 제공

건축에서 K-문화의 대표주자로 한옥의 가치를 높이는 국내 최초 비엔날레가 영암에서 열린다. 영암군은 오는 11월 8~10일 구립한옥마을과 영암목재문화체험장 일원에서 '2024 대한민국 한옥 문화 비엔날레'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축에서 문화로(Build Up Culture)'를 주제로 전라남도도와 함께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 최초 한옥문화 비엔날레로 전통 문화유산인 한옥의 국제적 가치를 높이고, 한옥문화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발견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옥의 건축 가치 조명, 과거 한옥문화 활동의 현대적 계승, 한옥의 새로운 문화·예술 가치 창조, 한옥문화 체험 기회 제공 등으로 꾸며진다. 행사는 3일 동안 전시, 공연 심포지엄,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영암목재문화체험장에서 열리는 전시는 건축에서 문화로 폭을 넓힌 한옥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자리이다. 방문객들은 역사 속에서 한옥이 축적해 온 문화가치를 살펴보고 이를 현대생활에서 어떻게 표현·재해석할 수 있는지 탐구해 볼 수 있다.

목재문화체험장 월출관에서는 실물과 같은 치수로 한옥을 그린 도면 '현지도'와 전통기법으로 한옥을 건립·복원하는 장인 '도편수'의 영상을 상영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생활리빙 공예품도 전시된다.

영암하정웅미술관과 영암도기박물관에서는 '휴식과 삶'을 주제로 20년 역사의 아시아 현대 도예 전 협력 전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영암목재문화체험장의 중심부인 마당에는 전통 정자를 재현한 한옥 파빌리온 '문화의 샘'이

설치된다. 문화의 샘은 한옥문화 비엔날레가 영암의 문화와 물을 길어내는 시작점을 알리는 랜드마크로 구립마을 한옥이 대한민국 대표 전통문화유산임도 동시에 보여준다.

한옥문화 비엔날레의 주요 행사인 개막식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탈출공연 등도 이곳에서 열린다.

이 외에도 마당 주변 회랑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옥의 짜맞춤을 구조를 배워보는 결구체험, 물레와 단청 체험, 로컬 페스타 등으로 풍성하게 채워진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구립마을 한옥은 대한민국 대표 문화유산이자, 영암의 선조들이 월출산 청정 자연과 어울리며 대대로 살아온 생태문화의 보고 '라며' 한옥문화 비엔날레에서 한옥-한옥문화-생태로 이어지는 K-문화의 정수를 밝히고, 한옥을 영암의 도시브랜드로 삼을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김산 무안군수가 23일 무안군청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겨울옷을 전달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 무안군, 외국인 근로자 겨울옷 기부 캠페인

무안군은 지난 23일 무안군청 직원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에 겨울옷을 기부하는 '외국인 근로자 겨울옷 나눔 캠페인'을 가졌다.

이날 캠페인은 따뜻한 나라에서 건너와 한국의 추운 겨울 날씨에 대비하기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입지 않는 겨울옷 기부를 통해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

행사에서 김산 군수는 직원들이 기부한 겨울옷

을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전달하며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했고, 부서별로 별도 기부된 옷은 전남노동권익센터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부족한 일손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무안의 따뜻한 정을 느끼고 힘차게 겨울을 보내면 좋겠다"며 "기부 운동에 참여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 해남 대흥사 호국대전 완공...단일 전각 국내 최대 규모

### 이틀간 현판식·문화대축제

한국불교의 호국정신을 선양하고 순국 의승군을 추모하는 호국대전이 전남 해남 대흥사에 건립됐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2교구 본사인 대흥사는 우리나라 대표 호국사찰로 임진왜란 당시 의승군을 이끌었던 서산대사의 종통이 이어져 오는 곳이다. 서산대사의 유언에 따라 임적 후 급관기사와 발우 등을 대흥사에 모시고 있으며 경내 서원인 표충사가 건립돼 서산대사, 사명대사, 처영대사의 영정이 봉안됐다.

정조대왕의 친필 사액도 하사돼 호국사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흥사 호국대전은 이러한 대흥사의 역사적 전통을 이어받아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호국의승과 순국선열 및 이름 없는 영웅들의 넋을 추모하는 공간이다.

776㎡ 단일 전각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2017년부터 국가유산청 사업으로 7년여의 기간을 거쳐 완공됐다.

현대적 의미의 표충사로서 나라사랑의 송고한



해남 대흥사 호국대전.

가치를 기리고 선양해야 할 순국선열들의 가르침을 전승하고 교육하는 장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대흥사는 11월 2일부터 이틀간 호국대전과 표충사 일원에서 현판식과 문화대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다음달 2일 서산대사 탄신 504주년 기념 표충사 추계제향을 시작으로 종교

제례악, 문화공연과 함께 법요식, 현판제막식, 국제 학술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됐다.

대흥사 관계자는 "올가을 두문산 대흥사를 방문해 특별하고 의미 있는 아름다운 가을 추억을 남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완도 해양 치유센터 국화 전시회 오늘 개막

### 다음달 17일까지 2만9000본 전시

'2024 해양 치유 완도 가을 섬 여행 국화 전시회'가 2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열린다. 완도군에 따르면 청정 해변 신지 명사십리에 국내 최초로 건립된 완도해양치유센터 일원에서 열리는 전시회에는 지난해보다 1만3000본 많은 2만9000여본의 국화가 선보인다.

전복과 완도리니(완도+산토리니) 모양의 게이트, 당사도 등대 등 신규 대형 조형물을 전시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리니 게이트를 통과하는 길은 형형색색의 국화와 푸른 명사십리 해변이 어우러져 색다른 포

토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치유센터 1층에는 완도사랑국화동호회들이 정성 들여 키운 국화 분재를 전시하고 완도군 문인협회에서는 시화전도 연다.

'2024 청정 완도 가을 섬 여행'이 시작되는 25일부터 27일까지 해양치유센터 일원에서 모래 테라피, 해변 요가, 명상, 노르딕 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체험해 볼 수 있다.

이복선 완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국화를 보며 가을 정취를 느끼고 바다를 거닐며 해양치유도 할 수 있다"며 "올가을은 완도에서 힐링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시민 참여 거리공연 '목포뮤직피크닉' 26일 시작

목포만의 감성과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목포뮤직피크닉'이 26일 시작된다.

목포시가 대표적인 휴식공간인 평화광장과 노을공원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거리공연인 목포뮤직피크닉을 선보인다.

시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공연 참가자를 공개 모집해 총 22팀의 최종 공연 참가자를 확정했다. 클래식, 어쿠스틱, 포크, 트로트, 풍물, 관현악 연주 등 다양한 장르의 다재다능한 참가자들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시민참여 공연뿐만 아니라 마술발문쇼, K팝, 뮤지컬, 크로스오버 중창단 등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가 더해져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재미와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문화공간인 평화광장과 노을공원에서 공연해 시민 참여자들의 지역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을 고취하고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문화예술행사의 시민 참여자들에게 즐겁고 유쾌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관람객들에게도 운치 있는 목포의 낭만 선율을 느낄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 신안군,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소금박람회

신안군이 오는 11월1일부터 3일까지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천일염은 세상의 빛이다'란 주제로 '2024 소금박람회'를 개최한다.

전남도도와 영광군 등과 공동으로 개최되는 소금박람회는 3가지 테마존으로 운영되며, 박람회 형식에서 벗어나 한강공원에서 소비자와 소통을 통해 천일염의 우수성 홍보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주제존에서는 천일염의 역사와 신안군 홍보관이 운영되고, 다양한 천일염 제품 전시 및 판매가 진행된다.

힐링·체험존에서는 소금사우나와 족욕체험을 할 수 있으며, 스탬프투어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천일염과 소금빵을 제공한다.

오락존에서는 소금데드리프팅, 소금발 어린이

놀이터,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이 마련돼 있다.

특히 감정철을 맞아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신안천일염 생산단체와 관내 업체들이 참가해 판로개척은 물론 다양한 신안천일염 제품을 선보이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한강공원에서 소금박람회를 개최해 다양한 소비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소금박람회가 신안천일염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